

# 놀면 뭐하니 vs 나 혼자 산다, MBC 예능 '논란' 극과극 대응

이효리 새 부캐 '마오' 언급에 中 네티즌 발끈  
 '놀면뭐하니' 측 신속 대처·VOD 등 영상 삭제  
 기안84 여성 희화화 비판 제기...국민청원까지  
 나 혼자 산다, 하차 요구 빗발쳐도 2주째 침묵중

논란에 대응하는 MBC TV 두 간판 예능의 서로 다른 대처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놀면 뭐하니?'에서 프로젝트 그룹 '썩쓰리'에 이어 '환불원정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이효리는 최근 부캐릭터 이름 논란에 휩싸였다.  
 이효리는 지난 22일 '놀면 뭐하니?' 방송에서 제작자 '지미 유'로 변신한 유재석과 개인 면담 도중 아직 예명을 못 정했다며 "글로벌하게 중국 이름 '마오'가 어떨까"고 물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마오'라는 이름이 중국의 전 국가주석 마오쩌둥(모택동)을 연상케 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일부는 이효리의 SNS에 "나도 한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예명은 '세종대왕'이 어떨까", "한국 사람이 점점 역겨워진다" 등의 비방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놀면 뭐하니?' 측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바로 다음날인 23일부터 VOD 등 유료 다시보기 서비스 등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해외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다. 보내주시는 우려처럼 특정 인물을 뜻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효리의 최종 부캐명은 다른 이름으로 정해진 상태다. 앞으로 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방송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기안84가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의 경우 2주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기안84는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복학왕'의 일부 내용이 여성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툰 연재 중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은 확산됐다.  
 "나 혼자 산다"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도 기안84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난 14일 기안84는 '나 혼자 산다'에

편집 없이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상을 공개한 모델 한혜진과 배우 광도원의 모습이 담겼다.  
 기안84는 평소처럼 스튜디오에 등장, 한혜진과 광도원의 일상을 보며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기안84는 지난 21일 방송분에서도 등장했다.  
 그는 광도원을 보며 "행님이 장가 못 가시면 나도 못 갈 것 같다. 내 미래 모습 같아서 그렇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편 기안84는 지난 17일 '나 혼자 산다' 녹화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것만 하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광도원 편은 2주 전에 미리 녹화된 분량이 방송된 것이고, 17일 녹화에는 기안84가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차는 아니다. 과거 다른 고정 멤버들도 종종 불참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 시간 거스르는 '인버전' 독특한데 불친절... '테넷'

오늘 개봉...12세 이상 관람가



작전에 투입된 요원 주도자(존 데이비드 워싱턴)는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테넷'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무기로 삼아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고군분투한다.  
 이것은 시간여행이 아니다. '인버전'이다. 시간을 거스르는 '인버전'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동시에 협공하는 미래 세력에 맞서 시간을 이용하는 작전을 펼친다.  
 복선에 복선을 가진 스토리는 퍼즐에 담긴 수수께끼와 같은데 이 과정에서 순행하는 시간과 역행하는 시간이 얽히고 모든 장면은 연결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은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신선하다. "기존의 장르를 답습하기 싫었다"는 감독의 말처럼 완전히 새로운 첩보 액션 장르를 개척했다.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세상

을 구한다는 단순한 스토리지만 이를 구현하는 구조와 디테일한 묘사가 생경하다. 왜곡되는 시간 이든, 실제 배우들이 처한 상황과 상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관객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인버전'이다. 사물의 엔트로피를 반전시켜 시간을 거스르는 미래 기술로, 미래에서 인버전된 무기를 현재로 보내 과거를 파괴할 수 있다.  
 이 인버전 기술로 러시아 재벌 사토르(케네스 브래너)는 세상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를 막기 위해 투입된 스파이 주도자(존 데이비드 워싱턴)는 미래에서 날(로버트 패튼슨), 사토르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한 아내 캐트(엘리자베스 데비키)와 협력해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과거를 버꾼다.  
 볼거리는 풍성하다.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쏟아부은 '테넷'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인도까지 해외 로케이션 사상 역대 최다인 세계 7개국에서 촬영했다.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초대형 야외 세트장을 건설했고, 컴퓨터 그래픽(CG)이 아닌 실제 보잉 747 비행기와 격납고 폭발 장면을 촬영했다. 시간 여행 기술 '인버전'이 등장하는 장면은 4DX의 시그니처 진동과 모션 효과를 만나 생생하다.

놀란 감독이 "내가 만든 영화 중 가장 야심 찬 영화"라고 자부한 작품으로 20년 동안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는 6년에 걸쳐 썼다.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고, '인터스텔라'로 함께했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킵 손이 대본을 검토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을 기반으로 독특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놀란 유니버스'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시각적인 즐거움에든 두뇌적 유희든, 음악이든, 관객을 매혹시키는 데 탁월한 재주를 지닌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스토리를 풀어내는 과정은 불친절하다. 배경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캐릭터들이 잘 짜인 사건에 무뎠다고 느껴진 부수적인 느낌이 강하다. 스토리의 주역인 주도자조차 대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아 몰입감이 떨어진다.  
 영화 초반, 과학자 로리는 주도자에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느껴라"라고 충고한다. 감독이 관객에게 하는 조언처럼 들리는 데 방대한 정보와 사건을 배출하다 보니 몰입감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주인공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경우 화려한 액션은 돋보였지만 관객을 압도하는 흡입력 있는 연기는 다소 버거워 보인다. '인셉션'의 리어나노 디캐프리오,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히와 비교하면 더욱더 아쉬운 대목이다.

## 윤제문 "'후쿠오카' 행복하게 찍은 작품...악역 벗고 싶어"

"악역 이미지 벗고 순정파로 돌아온다"



배우 윤제문이 악역 이미지를 벗고 순정파로 돌아온다.  
 영화 '후쿠오카' 측은 개봉을 이틀 앞둔 25일 주연배우 윤제문의 인터뷰를 공유했다.  
 '후쿠오카'는 28년 전 한 여자 때문에 절교한 두 남자와 귀신같은 한 여자의 기묘한 여행을 담은 작품이다.  
 윤제문에 대해 장률 감독은 "몸 전체가 연기"라고 말했고, 권해효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귀여운

배우, 선과 악을 넘나드는 연기", 박소담은 "믿고 갈 수 있는 든든한 선배"라고 극찬했다.  
 윤제문은 영화 속 캐릭터 '제문'에 대해 "후쿠오카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해효'를 찾아가 '제문'과 '소담', 3일 동안 기묘한 세 사람이 함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제문'은 28년 전 사랑했던 '순이'를 못 잊고 현재를 운영하며 혼자 지내는 바보 같은 면과 순정과 면모를 모두 지닌 인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본명과 같은 캐릭터 '제문'을 연기한 소감을 묻자 "작품을 할 때, 내가 맡은 캐릭터의 모습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다고 여기고 연기하는 편이다. 악역을 맡아도, 캐릭터가 표현하는 감정과 성격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박소담과는 '후쿠오카'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어리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촬영할 때 집중도가 좋은 편

이어서 함께 연기하는 배우로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칭찬했다.  
 '후쿠오카'에 대해서는 "행복했던 작품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걸어서 촬영장에 가고, 아침 대용으로 삼각김밥을 먹으며 촬영하던 추억들이 촬영이 아니라 소풍을 나온 것처럼 행복했다"며 "이렇게만 촬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하게 기분 좋게 찍었던 작품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예비 관객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후쿠오카'가 관객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제문은 임상수 감독의 신작 '해본: 행복의 나라로' (가제)에도 출연한다. 그는 "이제는 악역 좀 그만 하고(웃음), 대중들한테 좀 더 따뜻한 이미지,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동네 아저씨, 동네 형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역할들로 푸근하게 다가가고 싶다. 어떤 장르나 체널이든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왕첸웨이×포페이 '중국판 베테랑' 영화 '대인물'...내달개봉

베테랑, 중국서 1000만 관객 '흥행성공'



'베테랑'을 공식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 '대인물'이 다음 달 개봉한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25일 이러한 소식을 알리고 '대인물'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대인물'은 국내 역대 박스오피스 7위에 오른 '베테랑'을 공식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로, 정의감 넘치는 강력계 형사 '쑤파성'이 거대 기업 '자오스 그룹'을 상대로 추적 수사를 벌이는 범죄 액션 코미디다. 중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메인 포스터에는 영화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액션이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끈다. 포스터 정면엔 정의의 지키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주인공 경찰 '쑤파성' (왕첸웨이)과 그에 맞서 달려드는 재벌 2세 '자오타이' (포페이)의 거친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연기와 배우인 '왕첸웨이'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형사 역을 맡아 액션 배우로서의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포페이'는 코미디 배우로 쌓아온 이미지를 버리고 광기 넘치는 악역을 연기했다.

## 방탄소년단, MTV VMA 출연 안방 1열서 본다

총 3개 부문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 (BTS)이 출연하는 글로벌 음악 축제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2020 MTV Video Music Awards·VMA)를 안방 1열에서 볼 수 있게 됐다.  
 25일 SBS미디어넷은 "오는 31일 오전 9시(한국시간) 열리는 '2020 VMA'를 31일 오후 10시 SBS MTV에서 특별 편성 한다"고 밝혔다.  
 'VMA'는 1984년부터 시작해 올해 37회를 맞이했다. 매년 MTV가 주관하는 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한 해 동안 최고의 뮤직비디오를 선정하게 된다.  
 주요 시상은 올해의 아티스트 (Artist of the Year), 올해의 비디오 (Video of the Year), 올해의 노래 (Song of the Year),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Best Collaboration), 베스트 신인상 등 5개 부문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2월 발표한 앨범 '더 솔: 7' 타이틀곡 '온(ON)'으로 '베스트 팝(BEST POP)', '베스트 K팝', '베스트 안무' 등 총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9개, 빌리 아일리시가 더 위켄드가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수상을 가린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예고돼 있다. 방탄소년단은 새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Dynamite) 첫 무대를 펼친다.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더 위켄드, 마일리 사이러스 등도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SBS MTV는 'VMA' 후보자와 퍼포머들의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히츠 스페셜: VMA 노미니'와 '히츠 스페셜: VMA 퍼포머'를 각각 26일 오전 3시, 30일 오전 3시에 편성된다. 31일 오후 8시40분에는 '아이돌대백과: 방탄소년단'이 시청자들과 만난다.